광주시, 몽골 예술 생태계 인프라 구축 지원 성과

몽골서 문화 공적개발원조 성료
광주 미디어아티스트 현지 협업
울란바토르 비엔날레 작품 전시
"아시아 창의도시들과 연대 강화"

광주광역시가 몽골과 '2025 아시아도시 간 문화교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국제적 예술 교류의 장을 넓혔다.

광주시는 ODA 사업으로 지난 4월29일~6월21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일원에서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Asia Culture ODASIS(아시아 컬처 오다시스) 몽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몽골 전통 음악과 무용 그리고 현대 미디어아트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 작품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몽골 프로젝트는 '몽골 전통문화(음악·무용)와 미디어아트 융합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지난 4월29일~5월3일까지 몽골 시티대학교(Mongolia Citi University)에서 미디어아트 역량 강화 사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몽골의 예술·문화 분야 전공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울란바토르 현대미술 국제비엔날레'에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5월 한 달간 광주 출신 임용현·문창환 미디어아티스트가 멘토예술가로 참여해 미디어아트·무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몽골 청년예술가들과 협업한 창작 워크숍이 이어졌다. 워크숍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울란바토르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몽골 문화예술위원회, 현대미술단체 BLUE SUN이 협력했다.

광주시는 미디어아트 분야의 풍부한 인적·기술적 자원을 바탕으로, 현대미술 인프라가 열악한 몽골에서 국제 문화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4개(A·B·C·D) 팀은 지난달 18일 울란바토르 비엔날레 부대행사 '몽골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작품 결과보고회'를 통해 '몽골의 자연과 인간 그리고 현대와 과거'라는 주제로 각기 다른 콘셉트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 중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B팀의 '상호 연결의 춤'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몽골 예술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협력사업으로 몽골 시티대학교에 미디어아트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기증했고, 몽골 시티대학교는 시각디자인과학생·지역 청년예술가에게 개방해 교육자재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규 커리큘럼 운영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몽골 내 지속가능한 미디어아트 교육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신신하 문화정책관은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현지 예술가들과 함께 창작하고 성장하는 문화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사례"라며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쌓아온 역량과 국제협력 경험이 몽골 예술 생태계의 자립 기반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앞으로도 광주는 아시아의 창의 도시들과 연대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남도,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저리 융자

16일까지 접수…총 50억 규모

전라남도는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국내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등 민간 관광사업체로, 시설 확충과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내용은 관광호텔·펜션 등 관광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를 위한 시설자금과 인건비·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자금이다.

하반기 융자 총 규모는 50억 원 내외이며, 대출금리는 자체 최저금리인 연 1.0%다. 융자 한도는 업종과 용도에 따라 1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며, 상환 조건은 △신축 11년(4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증축 7년(3년 거치, 4년 분할) △개보수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운영자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5년(2년 거치, 3년 분할)이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해 말 발생한 여객기 사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을 올해에 한해 2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은 16일까지이며, 해당 사업체는 사업 소재지 관할 시·군 관광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시설자금 신청은 반드시 방문 접수해야 한다.

더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은 전남도 및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임택 광주 동구청장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연회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1일 대전 중구청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지방자치 30주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광주시, 하반기 전기이륜차 116대 보조금 지원

최대 300만원 차종별 차등
소상공인 등 지방보조금 추가

광주광역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총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116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접근성과 수요 확대를 위해 신청자의 거주 요건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국비 지원금 외에 지방비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3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1대1로 매칭되며,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배달용도로 구매할 경우 추가로 국비 및 지방비 지원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 단 취약계층과 배달용 추가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원동기 또는 2종 소형 면허를 보유한 시민이며, 광주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 법인과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 제출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3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구매자는 제작사 또는 수입사와 계약 후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신고해야 하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위반 때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광주시는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KS표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17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3시간 이상 걸리던 충전시간이 1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아 기자

전남도,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전국 최다'

농산어촌개발 등 3건 선정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앞장"

전라남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율계정 우수사례'에 노후상수도정비사업 등 전국 최다인 3건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해 균형발전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공로자를 포상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진행됐다.

올해는 시·도 자율계정 9건, 시군구 자율계정 11건 등 총 20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시·도 자율계정에서 1건, 시군구 자율계정에서 2건이 선정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3개 사업이 뽑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남도의 노후상수도정비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단수·단전 사태를 예방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곡성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 사례다. 목사동면 틀밭센터에서 무인카페, 청소년 영어회화, 노래·실버댄스 동아리 등을 주민들이 직접 구성·운영하며 로컬 문화 복합거점 공간으로 정착시킨 점이 주목받았다.

함평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포권역 다목적센터를 중심으로 농어촌환경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특화 체험관광 추진 등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사례 최다 선정은 전남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력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들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돼 전국에 확산되며,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www.nabi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상수도본부, 어린이 수돗물 체험캠프 운영

수질검사 체험 등 주제별 교육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수돗물 체험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수돗물 체험캠프'는 어린이들이 수돗물과 관련된 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체험캠프는 오는 8월12~13일 총 2회 운영되며,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와 덕남정수장에서 현장견학, 수돗물 수질검사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체험 시간은 오후 2~5시까지 3시간이다.

캠프에서는 △수돗물 직접 만들기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살펴보기 △물속에 사는 플랑크톤 관찰하기 △수질검사 체험 △수돗물 퀴즈 풀이 등 주제별로 전문가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8월5일까지 '광주시 바로예약' 누리집 또는 전화(062-609-6453)로 가능하다. 초등학교 4~6학년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체험 인원은 회당 20명이다.

정상아 기자

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